

# 중소절반 “최저임금 인상 폭 크면 신규 채용 축소”

### 사업종료 28.9% · 임금삭감 14.2% 뒤이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최저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인 50%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41.0%로 중소기업 97.0%가 고용축소를 최저 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인 50%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 감소(32.2%)', '지역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격차로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6.7%)'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낮게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뒤를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 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 등이었다.

또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

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육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지역업종차별의 빛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



휴가지 필수품, 레저용카메라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카메라 매장에서는 최근 캠핑·하이킹·수상 레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억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레저용 카메라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광주·전남 중소기업 R&D 돕기 위한 연구기관 가이드북 발간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비율, 전국비 3.4%로 저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자체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전문가 연계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 활용 길라잡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애로사항으로 기술개발 자금 부족(30.4%), 연구인력 부족(18.2%), 기술정보 부족(14.4%),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자체 기술개발 환경이 용이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비율이 전국대비 3.4%로 저조하여 자체적인 R&D 추진 보다는 연구기관의 장비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자체 구매가 힘든 고가의 전문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등 연구기관의 주요 인프라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창구가 마련된다면, 기술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리된 소책자에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

은 지역 14개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현황, 기업지원 내용, 기술분야별 전문가 POOL을 찾아보기 용이하게 기관별로 구분하고 장비사양, 주 활용대상 연락처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과 협의를 통해 소책자 구성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 제주항공, '짐(Jim)' 특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예매개시

제주항공이 '짐(JIM)' 특가항공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오후 5시에는 국제선 예매를 진행한다. 국내선은 6일 오후 5시에 시작한다.

대상 노선은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등 국제선 28개 노선과 국내선 6개 노선이며 탑승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짐(JIM)' 특가항공권은 모바일 앱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또 무료로 말기는 수하물 없이 기내에 3면 합계 115cm 이내, 무게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만 들고

탈 수 있는 조건이다. 노선별 특가운임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6개의 국내선(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김포~부산)을 9000원부터 판매한다.

국제선은 ▲부산발 일본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노선은 2만8900원 ▲인천발 일본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오키나와, 김포발 오사카, 인천발 중국 칭다오, 자무스, 웨이하이 등 9개 노선은 3만3900원 등이다.

## 국내 최초 발포주 '필라이트', 2개월 만에 1000만 캔 돌파

### 누적판매량 48만 상자 1267만 캔 달성

하이트진로는 신개념 발포주 '필라이트(Filite)'가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캔 판매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출시된 필라이트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판매량 48만 상자, 1267만 캔을 달성했다.

출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격대비 훌륭하다', '가성비 갑' 등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관심을 끌며, 판매 첫 주일부터 주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초기 물량 6만 상자(1상자=24캔)는 20일 만에 완판됐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기존 계획보다 생산량을 대폭 늘렸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품절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초기 완판 이후 40여일 만에 추가로 42만 상자가 판매됐고, 판매

속도는 초기 완판속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추세다. 필라이트의 판매추이는 가정용 캔, 펌트 제품만 판매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놀라운 정도로 빠른 편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필라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우수한 품질력에도 기존 맥주 대비 40% 저렴하고 뛰어난 가성비와 주목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가격이 줄면서 인상이되면서 장비구비 불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필라이트의 가성비에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알코올 4.5%의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의 90년 역사 주류 제조 노하우로 만든 제품으로 맥아와 국내산 보리를 사용해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한편 100% 아로마호프를 품미를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혼술, 홈술, 캠핑 등의 트렌드와 가성비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필라이트의 인기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물량을 공급해 많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필라이트 코끼리 캐릭터 '필리'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